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 꿈, 대한민국의 미래	
		배포일자	2022년 9월 6일(화) 총 6매		
담당 부서	문화유산과	담 당 자	• 유산계승팀장	김혜영 ☎440-8081	
	월미공원사업소		• 담당자	김진 ☎440-8085	
			시립박물관	• 공원운영팀장	조석남 ☎440-5911
				• 담당자	황인규 ☎440-5912
인천문화예술회관		• 전시교육부장	배성수 ☎440-6731		
		• 담당자	강동훈 ☎440-6795		
		• 기획운영팀장	최정화 ☎420-2710		
		• 담당자	정수산나 ☎420-2736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
보 도 시 점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	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
추석연휴 인천에서 즐겨볼까?

- 전통놀이, 전통공예 체험부터 공연 전시까지 ... 놀거리, 볼거리 풍성 -
-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부터 직접 배워보는 특별한 공예 체험 -

추석연휴 인천에서 즐겨볼까?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추석 연휴기간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해 관광객을 손짓한다.

한가위 정취를 담은 전통춤 공연을 비롯해 민속전통놀이와 전통공예 만들기 체험,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색깔 있는 전시까지 오감만족 이벤트가 가득하다.

특히 11일과 12일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되는 공예체험

행사는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보유자와 이수자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.

또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송암미술관, 한국이민사박물관, 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특별 전시와 함께 인근 핫 플레이스도 추천하고 있어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문이 될 전망이다.

인천시가 준비한 풍성한 이벤트와 일정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자.

보름달 밤, 이브닝 파티

전통춤 한미당 야외특별공연 야회(夜會) ... 10일 밤 송도 센트럴파크

<춤추는 도시 인천>의 야외특별공연이 추석 당일 밤 8시,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. 고향과 가족을 찾아온 시민들을 위해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준비한 선물 같은 공연이다.

<강강술래>로 문을 연 공연은 북 가락과 춤이 어우러진 <진도북춤>, <부채춤>, <시나위즉흥>, <미알할멈>, <동래학춤>으로 이어진다.

시나위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춤사위부터 익살과 해학을 담은 봉산탈춤의 한 장면을 표현한 미알할멈, 고고한 학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동래학춤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소고춤이 대미를 장식한다.

수많은 우리 춤 중에서도 추석에 어울리는 레퍼토리로 구성한 전통춤을 인천시립무용단의 공연으로 즐길 수 있다.

11·12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서 「공예 온(溫, On) 전통문화체험」 별도 사전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체험

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(<https://www.incheon.go.kr/culture/CU030101>)에서는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 ‘2022년 추석맞이 공예 온(溫, On) 전통문화체험 부스’ 행사를 진행한다.

무형문화재 기능분야 보유자와 이수자들로부터 전통문화예술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기회로 모든 체험행사는 무료로 제공한다.

11일 ▲단청체험 ▲목조각체험 ▲지화꽃체험 ▲소금만들기,
12일 ▲화각체험 ▲자수체험 ▲단소체험 ▲소금만들기 ▲완초체험 등
총 9종목 체험부스가 마련되며,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
접수로 체험이 가능하다.

체험행사는 양일 11:00~16:00까지 5회 차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회차
당 15명으로 제한한다.

월미공원 한가위 민속한마당 10~12일, 오후 2:30~5:30분 다양한 체험행사 마련·물범기도 연장 운영

월미공원사업소(<http://wolmi.incheon.go.kr>)는 10일부터 12일까지 월미
공원 내 양진당 일원에서 ‘2022년 월미공원 한가위 민속한마당 체험
행사’를 개최한다.

전통한복 키링·LED 민속사각등·캘리그래피 액자 만들기와 전통놀
이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한식과 궁중음식 전시도 진행한다.

체험행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되며 공원을 방문하는
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.

아울러, 연휴기간 중에는 월미공원 전망대와 둘레길을 운행하는 물범카의 운영
시간도 오후 5시에서 7시로 2시간 연장 운행한다.

재미와 의미,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라! 박물관 직원이 강력 추천하는 추석 연휴 인천 여행코스

①인천시립박물관 + 인천상륙작전기념관·가천박물관 〈큐레이터의 선택〉, 〈매일매일 인천기록〉

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〈큐레이터의 선택〉 기획특별전이 한창이다. 큐
레이터가 선택한 ‘청동향로’라는 한 가지 유물을 재질(청동), 기능
(향을 피우는 물건), 모양(정형향로), 역사(일제강점기 전쟁 공출), 영
감(작가들의 작품) 등 다섯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여 움니버스 형식의
테마 전시로 풀어냈다.

또 박물관 1층에는 인천 1세대 언론인이자 향토사학자인 고일 선생이
남긴 인천 관련 미공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〈매일매일 인천기록〉
이 전시중이다. 고일 선생은 그저 매일 주변에서 일어난 인천의 크고
작은 에피소드를 기록했을 뿐이었는데, 그 기록은 훗날 인천의 대표
적인 근현대 역사 자료가 됐다.

인천시립박물관 주변에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, 가천박물관 등이 있어
함께 관람하기 좋으며, 박물관 일대에는 식물원, 엔티크, 한옥 등 다
양한 콘셉트의 카페도 준비하다.

②송암미술관 + 아암호수

<민화, 비밀의 화원을 품다>

송암미술관에서는 아이들이 민화 문자도를 쉽게 익힐 수 있는 <문자 더하기 그림> 체험 전시가 개최 중이다.

문자도 그림 그리기, 카드 뒤집기 게임, 글자 퍼즐, 문자도 포토존 등 일곱 가지의 체험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실 입구에 어린이 체험 활동지도 구비하고 있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전시 감상을 가 능토록 했다.

미술관 직선 방향으로 15분을 걸으면 아암호수를 따라 조성된 인천 둘레길 10코스 산책로를 만날 수 있다. 미술관 방문을 오후 4~5시 즈 음으로 맞추면 이곳에서 장관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.

③검단선사박물관 + 경인 아라뱃길

<발굴로 깨어나는 3천 년 전 신도시 -검단신도시 발굴이야기>

검단선사박물관에서는 이색 전시, <발굴로 깨어나는 3천 년 전 신도시 -검단신도시 발굴이야기>가 한창이다.

이번 전시는 검단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실시한 발굴조사 성과를 시민 들에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. 이 발굴을 통해 해당 지역에 청동기시대 우리나라 중서부 최대 규모의 주거지가 형성되었음이 밝혀졌다.

박물관에서부터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도시를 가로지르는 경인아라뱃 길을 만날 수 있다. 수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기분을 전환해보자.

④인천도시역사관 + 송도센트럴파크

<푸른 별 지구에서 함께 살아요!>

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전시, <푸른 별 지구에서 함께 살아요!>가 진행된다.

환경 문제를 다룬 7권의 그림책 원화가 전시되고,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2편이 전시 기간 중 반복 상영된다.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, 부모님 등 모든 연령대가 기후변화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.

전시 감상 후에는 송도 센트럴파크로 이동해 보자. 센트럴파크를 따라 10분가량 걸으면 만나는 코마린리스트보트하우스에서는 문보트(Moon boat)를 즐길 수 있다.

<붙임> 관련 사진 별첨